

#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尹永水\*\*

---

## 目次

---

- I. 序論
  - II. <壬申의 亂>의 원인과 배경
  - III. <天皇卽神>과 <現人神> 思想
  - IV.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 V. 結論
- 
- 

## I. 序論

필자는 근래에 발표한 「近江朝의 文學과 政治」(『東아시아古代學』 第0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4. 12.)라는 논문에서, 白村江(하쿠스키노에) 전투에서의 패배와 백제멸망이 계기가 되어 성립한 近江朝(A.D. 667~672)는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이 당시의 정치와 문학에 깊이 참여하여 활약하면서 일본고대국가의 발달과 日本文化史上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로서, 문학사적으로는 日本文學史上의 획기적인 대전환기이면서 일본문학과 萬葉歌의 발달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시기였으며, 정치사적으로도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선진의 정치가 펼쳐지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일본의 역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轉機(Turning point)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壬申의 亂>(A.D. 672)이라는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近江朝 이후의 왕조인 天武朝(A.D. 672~686)의 문학과 정치는 어떠한 양상을 띠며 전개해 가는가? 본 연구는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를 歷史社會學的인 연구방법과 學際的인 입장에서 면밀히 고찰해 봄으로써, 天武朝가 갖는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日本文化史上의 意義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먼저 天武朝 탄생의 계기가 된 <임신의 난>의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A00420)

\*\*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고대문학·고대일본학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며, 天武朝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天皇即神思想과 現人神思想의 형성배경, 그리고 天武朝의 문학과 정치적 상황을 『日本書紀』 『古事記』 『萬葉集』 등의 문헌에 나타난 기록이나 가요 및 萬葉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壬申의 亂>의 원인과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고대사에 있어서 <임신의 난>이라고 불리는 內戰은 당시 황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A.D. 672년 天智천황 사망 후에 수립된 大友(오 토모)황자(나중에 弘文천황)의 新政權을 무너뜨리고 大海人(오 아마)황자가 天武천황으로서 즉위하기까지의 이 전란은 소위 白鳳시대의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문학사적으로도 上代の 집단적·서사적인 口承歌謠가 개인적·서정적인 和歌(記錄文學)로 발전해 간 『萬葉集』 제1기가 끝나고, 제2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대일본에 있어서 정치사적으로도 문학사적으로도 이토록 중요한 사건인 <임신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임신의 난>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난의 주요한 원인과 배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첫째는, 황위계승문제에 대한 大海人황자의 불만을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필자가 別稿<sup>1)</sup>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書紀』 天智朝 말년과 天武即位前紀에 나타난 기록이나 歌謠(童謠)의 내용을 통해서 명백히 증명된다. 즉 『日本書紀』 天智천황 10년(671) 10월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天智천황이 大海人황자에게 「朕、病甚し。後事を以て汝に屬く(집은 병이 깊다. 뒷일을 너에게 맡긴다)」<sup>2)</sup>라고 분부했는데도 大海人황자가 병을 핑계삼아,

「請ふ、洪業を奉げて、大后に付屬けまつらむ。大友王をして、諸政を奉宣はしめむ。臣は請願ふ、天皇の奉爲に出家して修道せむ」<sup>3)</sup>

(청하거늘, 나라의 큰일을 황후에게 맡기소서. 大友황자로 하여금, 모든 政事を 받들게 하소서. 신은 청원하거늘, 천황을 위해 출가하여 修道하려 합니다.)

1) 줄고,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 『日本學報』 第37輯 韓國日本學會, 1996. 11. p.316. \_\_\_\_\_,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研究』, 景仁文化社, 2001, p.116.

2)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91, p.378.

3) 전게서, 天武天皇即位前紀에도 동일한 내용의 記事가 있음

라고 고사한 다음,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吉野(요시노)山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당시 世人 중의 어떤 사람이 吉野에 들어간 大海人을 보고 「虎に翼を着けて放てり(뱀에 날개를 달아 놓아 주었다)」<sup>4)</sup>라고 말한 기록이나, 그 해(671년) 12월 天智천황이 大津(오츠)宮에서 사망했을 때 유행했던 다음과 같은 童謠(わざうた)<sup>5)</sup>를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 み吉野の 吉野の鮎 鮎こそは 島傍も良き え苦しゑ 水葱の下 芹の下 吾は苦しゑ 其一。  
(요시노의 은어야말로 섬 근처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아아 괴롭다! 물옥잠 아래, 미나리 아래에 있어서)
- \* 臣の子の 八重の紐解く 一重だに いまだ解かねは 御子の紐解く 其二。  
(신하인 내가 자신의 수많은 끈을, 아직 한 겹조차도 풀지 못하는 동안, 황자는 자신의 끈을 완전히 풀으셨네!)
- \* 赤駒の い行き憚る 眞葛原 何の傳言 直にし良けむ 其三。  
(붉은 조랑말이 나아가기 어려운 참이 가득 나 있는 들판, 人便의 傳言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직접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sup>6)</sup>

위의 童謠에 대하여,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學大系)의 校注者は 위의 세 번째 童謠(其三)가 오래된 민요풍의 노래를 모은 『萬葉集』 卷十二의 3069번가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래 <み吉野의>의 노래는 어민 아니면 농민의 노동가, <臣の子의>의 노래는 貴人을 맞이한 여자의 기쁨의 노래, <赤駒의>의 노래는 사랑을 유혹하는 여자의 노래일 것이다. …(중략)…그것을 天智崩御 후의 황위계승을 둘러싼 다툼을 풍자한 것 아마 其一은 吉野에 들어간 大海人황자의 괴로움을 풍자하고, 其二是 吉野側의 전쟁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풍자하며, 其三是 近江側과 天武側과의 직접교섭을 권유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되지만, 풍자하는 바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고, 어느 것이라고 정하기 어렵다. 어떻든 五行志의 서술의 태도를 모방한 記述. 이윽고 다가올 전쟁을 풍자한 노래인 것은 틀림없다」<sup>7)</sup>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바른 해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치적 풍자나 시사를 다룬 동요는 무엇보다도 『日本書紀』에 기록된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4) 『日本書紀』 天武天皇即位前紀.

5) 「童謠(わざうた)」란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는 古代歌謠의 일종이다. 『日本書紀』의 舒明·皇極·齊明·天智紀의 卷末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時事的인 사건을 풍자한 것이 많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노래부르게 하고 유행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日本書紀 下』, pp.380~381 頭注.

7) 전게서, p.381 頭注.

전후관계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우선 위의 동요에서의 <吉野의 鮎>는 의심할 바 없이, 황위계승문제로 天智천황과 不和하여 吉野에 들어간 大海人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天智가 죽자마자 곧 이러한 동요가 유행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주는 노래로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岩波 『日本書紀』의 校注者가 이 동요를 6개월 후에 일어난 임신의 난을 염두에 둔 나머지, 「이윽고 다가올 전쟁을 풍자한 노래」라고 하는 지적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大海人황자는 어쩌서 황위계승문제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天智천황이 처음에는 남동생인 大海人황자를 황태자로 정했으나,<sup>8)</sup> 나중에 자신의 친아들인 大友황자를 후계자로 삼고자 天智10년(671) 정월에 太政大臣에 임명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天智천황이 大海人황자 대신 大友황자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도중에 마음을 바꾼 것은 大久間喜一郎(오구마 기이치로)도 지적한 바와 같이,<sup>9)</sup> 자신에게 불만스런 大海人보다는 大友황자 쪽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또한 『懷風藻』<sup>10)</sup>의 大友皇子傳과 漢詩二首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훌륭한 풍채와 博學多通하고 文武의 재간이 뛰어났으며, 더군다나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 더욱 믿음직스럽고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皇位로부터 멀어지고 더욱이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나머지, 大海人은 황위계승에 불만을 품고 병을 핑계삼아 吉野山으로 은퇴해 버린다. 그러다가 671년 12월 天智가 사망하자, 672년 6월에 大海人은 자신을 따르던 황족 및 飛鳥(아스카)의 구호족의 세력을 배경으로 삼아 그때까지 일본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둘째, 近江조정의 중앙집권의 강화나 백제의 망명지식인 및 유력호족의 우대정책에 대한 지방호족층의 불만도 난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서는 天智6년(667) 3월, 飛鳥에서 近江으로 천도할 때에 飛鳥지방의 호족, 寺院, 농민층으로 대표되는 구세력의 불만과 반발의 증거, 즉

「是時、天下百姓、不願遷都、諷諫者多。童謠亦衆。日日夜夜、失火處多」<sup>11)</sup>

(이때, 천하백성 천도를 원치 않아 諷諫하는 자가 많았다. 이를 비난하거나 풍자한 동요도

8) 大海人황자의 立太子의 유무에 대해서는, 天武即位前紀는 황자가 天智稱制년에 立太子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天智紀에는 立太子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同年이후, 大海人황자에 관하여 大皇弟7년 5월조, 8년 5월조 · 東宮大皇弟(8년 10월조) · 東宮太皇弟(10년 5월조) · 東宮(10년 10월조) · 皇太子(10년 5월조) 등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天智즉위와 더불어 立太子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그것은 天武천황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日本書紀』 편찬자의 追記이고, 실제로는 정식으로 황태자의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라는 설도 있다(『日本書紀下』, pp.585~586). 한편, 『萬葉集』 卷一, 21번가의 題詞에는 大海人황자를 皇太子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懷風藻』에는 大友황자를 황태자로 표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고 하겠다.

9) 大久間喜一郎, 「人麻呂と壬申の亂」, 『古代文學の傳統』, 笠間書院 1978, p.394.

10) 『懷風藻 · 文華秀麗集 · 本朝文粹』(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8, pp.67~71.

11) 『日本書紀 下』, p.367.

많았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失火한 곳도 많았다)

의 기록이나, 天智10년 정월에 천황이 大友황자를 太政大臣에 임명하고, 유력호족인 蘇我赤兄臣(소가노 아카에노 오미)을 左大臣에, 中臣金連(나카토미노 가네노 무라지)을 右大臣에, 蘇我果安臣(소가노 하타야스노 오미)·巨勢人臣(고세노 히토노 오미)·紀大人臣(기노 우시노 오미)을 御史大夫에 임명한 다음, 같은 달에 達率 이상의 백제의 망명인 약 70여명에게 일본의 관위를 수여했을 때, 당시 세간에 유행했던 다음의 동요를 들 수 있다.

\* 橘は己が枝枝 生れれども 玉に貫く時 同じ緒に貫く(紀·125)

(귤나무는 제각기 가지마다 열매 맺지만 구슬에 꿰 때는 같은 실에 꿰네)

위의 노래는 “출생이나 신분·재능은 비록 제각기 다를지라도,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꿰줄이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여 당시의 일본과 백제와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 주는 노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요가 세상에 유행했다는 사실은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우대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판단해 볼 때 본래 近江조정 그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애당초 많은 불만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러한 불만과 모순이 天智8년(669) 10월의 内大臣 藤原鎌足(후지와라노 가마타리)의 죽음에 이어 카리스마적인 존재였던 天智천황이 사라진 뒤에 자연적으로 폭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임신의 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밖에 直木孝次郎(나오키 고지로)이 지적한 바와 같이,<sup>12)</sup> 近江조정이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한 것에 대해, 신라세력이 大海人황자를 지지해서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견해 등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天智가 황태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大化改新(645년) 이후 近江朝까지의 27년간은 오로지 백제일변도의 외교정책이었다. 백제구원을 위한 일본군 파견, 백촌강 전투에서의 대패, 그로 인한 近江천도의 강행, 망명인들에 대한 우대정책, 백제풍의 문화수용 등은 구세력으로 대표되는 大和의 호족·사원·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불만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일본 황실과 백제와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밀접했다고 하더라도 宮都를 옮기고, 망명인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近江조정 그 자체도 백제의 망명정부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볼 때, 기존의 세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물론,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친 백제일변도의 외교정책과 망명인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신라계 세력들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했고, 이것이 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황위계승문제에 대한 大海人황자의 불만과 집권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12)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編, 『新編 日本史辭典』, 東京創元社, 1993, p.526.

大友황자와의 싸움이 난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近江조정  
 중앙집권의 강화나 백제의 망명지식인 및 유력호족의 우대정책에 대한 지방호족층과 신라  
 계 세력의 불만, 게다가 天智 27년간에 걸친 백제일변도의 외교정책과 실패 등, 여러 원인이  
 쌓이고 쌓인 나머지, 결국 <임신의 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견  
 해가 아닐까 판단된다.

### Ⅲ. <天皇即神>과 <現人神> 思想

<임신의 난>이라는 일본역사상 유례가 없는 쿠데타에 의해 황위를 탈취한 天武천황의  
 시대가 어떠한가는 『萬葉集』의 다음 노래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壬申年之亂平定以後歌二首

(임신년의 난을 평정한 이후의 노래 두 수)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赤駒の 匍匐ふ田井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0)  
 (천황은 신이시기에 얼룩말 기어다니는 논밭을 皇都로 만드셨도대)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水鳥의 多集く水沼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1)  
 (천황은 신이시기에 물새 떼 모여드는 늪을 皇都로 만드셨도대)

위의 萬葉歌 두 수는 題詞와 작품의 내용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임신의 난> 후에  
 곧바로 있었던 飛鳥淨御原宮의 造營이 완료된 후, 감개무량하여 지어 부른 천황찬가의  
 대표적 유형에 속하는 노래이다. 4261번가는 작자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4260번가는 임신  
 의 난 때 天武편에서 활약한 大伴卿(오 도모요), 즉 大伴御行(오 도모노 미유키)의 작품  
 이다. 그런데 위의 노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천황은 신이  
 시기에>>라고 하는 <天皇即神>과 <現人神><sup>13)</sup> 사상을 나타내는 천황찬가·궁정찬가가  
 임신의 난을 평정한 후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천황찬가·궁  
 정찬가는 天武朝뿐만 아니라, 持統朝(A.D. 686~697)에 내려와서도 人麻呂(히토마루)나  
 그 외의 가인에 의해,

13) <天皇即神>과 <現人神>의 표현을 엄밀하게 달리 해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神野志隆光 「人麻呂の天皇神格化表現をめぐって」 『稻岡耕二先生還暦記念 日本上代文學論叢』, 上代文學研究會編 塙書房, 1990.)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괄하여 취급하기로 한다.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天雲の 五百重が下に 隠り給ひぬ (卷二, 205)  
(천황은 신이시기에 겹겹이 쌓인 하늘구름 아래 숨으셨도대!)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天雲の 雷の上に 廬せるかも (卷三, 235)  
(천황은 신이시기에 구름이 떠 있는 이카즈치 언덕 위에 암자를 짓고 계시는구내!)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雲隠る 雷山に 宮敷きます (卷三, 235의 或本歌)  
(천황은 신이시기에 구름 속에 숨은 이카즈치 산에 궁전을 짓고 계시는구내!)
- \*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眞木の立つ 荒山中に 海を成すかも (卷三, 241)  
(천황은 신이시기에 거목이 울창한 거친 산 속에 바다를 만드셨도대!)

와 같이, 천황이나 황자를 신격화 내지 찬미하는 노래로서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大君は 神にし座せば>의 시구야말로 天武·持統朝에 널리 유행했던 하나의 관용구로서 白鳳의 시대정신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아닐까. 또한 大化改新 이래 추구해온 천황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마침내 천황을 신격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이 <天皇即神> 사상에 대하여는 중국 문학의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고 近江朝의 新文學의 발흥 속에서 채택되고 완성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고,<sup>14)</sup> 천황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현세에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現人神>의 용어도 『日本書紀』 景行天皇紀나 雄略天皇紀 등에 이미 보이고는 있다.<sup>15)</sup> 그러나 <天皇即神>이나 <現人神> 사상은 어디까지나 <임신의 난> 이후인 天武朝에 와서 뚜렷이 형성되고 열렬히 노래 불려진 시대정신으로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天智朝까지만 해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 天皇即神·現人神 사상이 <임신의 난> 후인 天武朝에 와서 왜 갑자기 등장해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天武朝의 정치형태는 天智朝와는 달리, 유력호족이나 백제의 망명 지식인들의 협력에 의한 타협정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소호족출신들의 지지에 의해 수립된 정치체제였다는 점이다. 즉 大化改新을 단행한 中大兄황자는 중앙집권국가로의 이상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政敵을 살해하는 등, 무단정치를 행하기도 했지만, 大局的 견지에서는 그 정치형태가 유력씨족과의 타협정치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天智朝 말년에 大友황자를 太政大臣의 지위에 앉히고, 左右大臣·御史大夫를 두며, 망명지식인을 法官大輔·學職頭 등에 重用한 정치형태는 유력호족과 백제의 망명지식인들과의

14) 中西進, 『萬葉集の比較文學的研究 上卷』, 櫻楓社, 1972, pp.195 ~202.

15) 『日本書紀 上』, p.306 및 466.

협력 하에 정치를 행하려는 것과 다름없었다.<sup>16)</sup> 그것은 蘇我氏를 중심으로 하는 대호족의 대표자와 망명지식인을 정부의 고급관리·고급두뇌로 삼아 천황을 보좌하도록 한 정치형태였던 것이다. 中大兄 자신도 27년간이나 藤原鎌足이라고 하는 충실한 보좌역과 협력하면서 정치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大海人の 天武朝의 경우는 임신의 난에 의해 유력호족과 백제망명인들은 세력을 상실하고,<sup>17)</sup> 중소호족출신의 官人層이 정계에 진출하여 天武朝를 떠받치게 되었다. 그 까닭은 <임신의 난>에서 天武側을 지지한 쪽이 중소호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天武朝에 있어서는 천황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신격화까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천황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소수의 대호족과 타협하는 식의 정치였다면, 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군소호족의 경우에는 천황이 그들 개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일일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天武천황은 높아진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皇親정치를 과감히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시대정신은 자연히 아래로부터 형성되었으리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近江朝의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불만을 가졌던 중소호족이나 구세력의 입장에서는 大海人이야말로,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만족시켜 준 위대한 영도력의 군주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大君は 神にし座せば>의 천황 찬미와 신격화는 <임신의 난>의 승리자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天武朝의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天武천황은 자의든 타의든 역대천황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자신의 오랫동안 품어왔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 IV.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임신의 난>의 승리 후, 天武2년(673) 2월, 새로 造營한 飛鳥淨御原(아스카 기요미하라)宮에서 즉위한 天武천황은 황후로서 鸕野(우노)황녀(나중의 持統천황)를 두고, 左右大臣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皇親정치를 실시한다. 먼저 天武4년(675) 2월에는 여러 호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部曲(私有民)을 폐지하고, 親王·諸王 및 諸臣·諸寺 등에 하사했던 山澤·嶋浦·林野·陂池를 거두어들여

16) 『日本書紀 下』, pp.375~376.

17) 줄고,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전계논문), pp.319~320.

\_\_\_\_\_,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는 百濟系인가?」, 『東아시아古代學』 第1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0, 6, p.65.

궁중에 귀속시킴으로써 사유를 금지시킨다. 그리고 天武10년(681) 2월에 소위 <飛鳥淨御原令>의 편찬을 명령하고, 같은 해 3월 川嶋(가와시마)황자·忍壁(오사카베) 황자 등에게 <帝紀 및 上古諸事の 記定><sup>18)</sup>도 명하고 있다. 이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은 『古事記』 서문에 소개된 天武천황의 修史사업에 대한 취지,

「朕聞く、諸家のもたる帝紀及び本辭、既に正實に違ひ、多く虚偽を加ふと。今の時に當りて、其の失を改めずば、未だ幾年をも經ずして其の旨滅びなむとす。斯れ乃ち、邦家の經緯、王化の鴻基なり。故惟れ、帝紀を撰録し、舊辭を討覈して、偽りを削り實を定めて、後葉に流へむと欲ふ。」(원문 한문)

(짐이 듣거늘, 여러 씨족이 갖고 있는 帝紀 및 本辭는, 이미 正實과 다르고, 虚偽가 많다고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 본래의 뜻은 소멸될 것이다. 이 帝紀와 本辭는, 국가조직의 근본이고, 천황정치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帝紀를 정리하고, 舊辭를 자세히 검토하여, 거짓을 삭제하고 진실을 정해서, 후대에 전하려 한다.)

라는 취지뿐만 아니라, 天皇家의 권위를 『古事記』 『日本書紀』라는 역사서의 편찬을 통해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신의 난>을 일으켜 황위를 탈취한 天武의 입장에서는 역사서의 편찬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황실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古事記』 서문 속의 임신의 난에 대한 서술도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古事記』 『日本書紀』가 비록 天武朝에서는 완성되지 못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황위찬탈자의 입장에서, 또한 대외적인 입장에서 황실의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문학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古事記』 『日本書紀』가 편찬되어 나오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체계화되고 정치화된 일본신화가 탄생된다는 것이다. 일본신화가 국가신화·정치신화로서의 특성을 갖는 이유에 대하여, 松前健(마츠마에 다케시)는 「일본고전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본래 민간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소수의 귀족들이 중앙집권을 위한 국가사상·정치의식을 갖고, 文筆으로 集録하고, 재료를 취사선택하여 편집했으므로, 본래 민족신앙의 所産이어야 할 <신화>와는 다른 것이 되었으며,

18) <帝紀>는 『古事記』 서문에서 말하는 帝皇日繼이고 역대천황의 계보 <上古諸事>는 아마 本辭·舊辭·先代舊辭로 일컬어지는 것과 동일하고, 여러 종류의 說話. <記定>이란 여러 種의 異說을 검토하여, 史實을 확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 『古事記』 서문에 의해서 이것을 『古事記』 撰修의 濫觴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오히려 그때까지 천황자신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소규모의 궁정사업을 대신하는, 대규모의 국가적인 修史事業의 개시이고, 『日本書紀』 성립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日本書紀 下』, pp.593~594).

…(중략)…일본고전신화의 체계화는 역사편찬의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순수한 종교적 기능을 갖는 미개민족의 신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sup>19)</sup>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萬葉集』의 柿本人麻呂(가키노 모토노 히토마로)의 <日並(히나미시)皇子挽歌>(卷二, 167~170) 중에서

\* 天地の初の時 ひさかたの 天の河原に 八百萬 千萬神の 神集ひ 集ひ座して 神分り 分りし 時に 天照らす 日女の尊 天をば 知らしめすと 葦原の 瑞穂の國を 天地の 寄り合ひの極 知らしめす 神の命と 天雲の 八重かき別きて 神下し 座せまつりし 高照らす 日の皇子は 飛鳥の 淨の宮に 神ながら 太敷きまして 天皇の 敷きます國と 天の原 石門を開き 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 わご王 皇子の命の 天の下 知らしめしせば 春花の 貴からむと 望月の 満しけむと 天の下 四方の人の 大船の 思ひ憑みて 天つ水 仰ぎて待つに いかさまに 思ほしめせか 由縁もなき 眞弓の岡に 宮柱 太敷き座し 御殿を 高知りまして 朝ごとに 御言問はさぬ 日月の 數多くなりぬる そこゆゑに 皇子の宮人 行方知らずも (卷二, 167)

(천지개벽할 때 하늘의 강가에 많은 신들이 모여 의논했을 때에, 天照大神은 天上界를 다스리신다고 하고, 이 日本國의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신으로서 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내려오신 日並황자는 清御原宮에서 신으로서 거룩하게 나라를 영도하시고 천황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여 하늘의 암굴문<岩戸>을 열고 올라가셨다. 이 日並황자가 천하를 다스렸다면, 봄의 꽃처럼 고귀할 것이라고, 보름달처럼 충만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크게 의지하여 가뭄에 단비<天水>를 기다리듯 우러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日並皇子>는 어찌 생각하셨는지 연고도 없는 眞弓<마유미> 언덕에 廣宮을 지으시고 아침마다 말씀도 없으신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므로 황자의 宮人들은 어찌 헤아릴 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노라!)

의 작품이나, 人麻呂歌集歌 중의 <天武9년(680) 庚辰年><sup>20)</sup>에 제작된 작품

\* 天の河 安の河原に 定まりて 神競者磨待無 (卷十, 2033)  
(하늘의 야스 강가에 모여서 神競者磨待無)

등에 나타난 高天原의 관념과 신화적 발상이 모두 天武朝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더욱이 『古事記』 『日本書紀』의 신화가 성립되기 이전의 古傳承에 의한 서술이라 할지라도,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과 人麻呂의 사상형성과는 전혀 무관계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언어예술인 문학과 관련지어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天武11년(682) 3월에 있었던 <新

19) 松前健, 「日本神話の特性」 『時代別 日本文學史事典 上代編』, 有精堂, 1987, pp.43~48.

20) 桑川定一, 「人麻呂歌集庚辰年考」 『國語國文』 第35卷 10號, 1966. 10.

字一部四十四卷>의 편찬에 관한 조칙이다. 이 天武朝의 <新字四十四卷>에 대하여 小島憲之(고지마 노리유키)는 「한자에 관한 것이고, 『魏書』의 문자제정에 관한 주장과 유사하며, 唐代제정의 <今字>에 자극받아 案出된 것으로서 一般官人, 初學者 등에 대한 문화정책·계몽교육의 하나이기도 했다」<sup>21)</sup>고 논술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자체의 이른바 國字라는 설, 한자의 訓釋을 一定化한 것이라는 설, 天武朝의 修史사업과 관련하여 古語의 정확한 표기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2)</sup> 간과할 수 없다. 또한 <古字>를 의식하여 <新字>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때,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문자 대신에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여 제정하려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특히 人麻呂가 持統 3년(689) 이전에 이미 人麻呂歌集의 <略体歌>로부터 <非略体歌>로의 일본어 표기법을 개발해 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sup>23)</sup> 天武朝의 언어정책과 人麻呂歌集과의 표기법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天武의 정치 중에서 天武13년(684) 10월에 있었던 <八色の姓> 제정도 천황중심의 새로운 신분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更諸氏の族姓を改めて 八色の姓を作りて, 天下の萬姓を混す(다시 여러 씨족의 성을 고쳐서, 八色の姓을 제정하고, 천하의 모든 성을 구별한다)」<sup>24)</sup>고 하는 방침에 따라 정해진 성은, 上位부터 眞人(마히토)·朝臣(아소미)·宿禰(스쿠네)·忌寸(이미키)·道師(미치노시)·臣(오미)·連(무라지)·稻置(이나키)의 여덟 성으로, 각 씨족의 가문이나 정치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臣·連·伴造(도모노 미야쓰코)·國造(구니노 미야쓰코)라고 하는 신분질서에 대하여, 臣·連 중에서 황실과 관계 깊은 성만을 추출하여 眞人·朝臣·宿禰로서 上位에 두고, 그 외의 성을 下位에 두어 호족을 천황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 속에 편성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皇親의 사회적 지위가 확립됨과 동시에, 관료제 강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상급·하급 官人層의 구별, 중앙귀족·지방호족간의 차별이 명확하게 標識化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八姓 중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眞人>는 『新撰姓氏錄』의 분류체계 중에, <皇別>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天皇家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임을 알 수 있는데, 崔在錫은 신라시대의 골품제의 하나인 <眞骨>에서 연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주장은 天武朝에 있어서는 신라와의 외교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 영향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天武가 행한 정치 중에 天武14년(685) 정월에 있었던 관료제의 정비도 율령제도의 확립

21) 小島憲之, 『萬葉以前』, 岩波書店, 1986, pp.184~191.

22) 『日本書紀 下』, p.594.

23) 稻岡耕二, 「人麻呂歌集歌の筆録とその意義」, 『國語と國文學』 第46卷 10號, 東京大學 國語國文學會, pp.68~71.

24) 『日本書紀 下』, p.464.

25)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1990, p.120.

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즉 天武는 그때까지 사용해 왔던 天智3년(664)에 제정된 冠位를 개정하여, 諸王12階, 諸臣48階의 새로운 冠位制를 제정·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왕과 신하의 위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천황가의 권위를 한층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게다가 <八色の姓>의 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中央官制는 완전히 정비되었고, 지방행정제도도 더욱 정비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天武朝에는 관료제도의 정비·新冠位の 제정·八色の姓 제정·部曲의 폐지·飛鳥淨御原令의 편찬·帝紀 및 上古諸事の 記定·新字의 제정 등, 율령국가 성립에 필요한 정치·경제·문화면의 여러 제도가 급속도로 정비되고 진전되어 갔다. 따라서 大化改新으로부터 시작된 중앙집권국가와 율령에 의한 지배체제가 비로소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近江朝(天智朝)와는 달리 天武朝의 문학은 실제로 어떤 양상과 특징을 띠며 전개해 가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日本書紀』 天武紀에는 天智紀 卷末에 나타난 바와 같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時事를 풍자한 童謠나 歌謠는 한 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바로 天武朝가 신격화된 천황의 절대권력 하에 정치적·사회적으로 지극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近江朝와는 달리 궁정문학적인 요소는 天武朝의 문학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天武朝가 <임신의 난>이라는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왕조인 만큼, 정치적 개혁이 급선무였고, 문학을 꽃피울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近江朝의 문학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와 문화적 궁전을 배경으로 하여 꽃핀 반면에, 天武朝의 飛鳥淨御原宮이 있는 大和지방은 궁정문학이 꽃필 수 있는 자연 환경적인 면이 近江보다는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近江朝에 있어서 일본최초로 발달했던 한문학도 天武朝에 와서는 침체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한문학에 뛰어났던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의 문학적 전통이 계승 발전되지 못한 데다가, <임신의 난>으로 인하여 망명인들도 죽거나 일본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필자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6) 『懷風藻』의 서문이나 『萬葉集』의 柿本人麻呂의 작품(卷一·29~31, 卷三·264) 등에 의해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넷째, 『萬葉集』에 있어서도 人麻呂歌集歌를 제외한다면 近江朝보다 왕조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天武朝는 어디까지나 柿本人麻呂 등이 크게 활약하는 持統朝의 和歌 황금기를 준비하는 시기는 될지언정, 전반적으

26) 줄고, 「萬葉歌의 탄생과 渡來人の 역할」, 『日語日文學研究』 第12輯 <文學·日本學 篇>, 韓國日語日文學會, 2002. 8, pp.16~21.

\_\_\_\_,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는 百濟系인가?」(전계논문), pp.56~63.

로는 和歌의 침체기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近江朝의 문학과 정치와 학문이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국제적 성격을 띤 반면에,<sup>27)</sup> 天武朝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국제화의 성격은 퇴색하고 日本化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필자는 『萬葉集』의 柿本人麻呂의 문학이라 생각한다. 즉 한문학의 자취를 간직하면서도 일본전통의 문학과 창조를 이룩해 간 人麻呂가 人麻呂歌集 七夕歌 등을 통해 일본어 표기법을 개발해 갔고, 본격적인 作歌활동을 전개해 간 시기도 바로 天武朝였던 것이다.<sup>28)</sup>

## V. 結 論

天武朝 탄생의 계기가 된 <임신의 난>의 원인과 배경에는 황위계승문제에 대한 大海人황자의 불만과 집권욕, 近江조정의 중앙집권의 강화나 백제의 망명지식인 및 유력호족의 우대정책에 대한 지방호족층과 신라계 세력의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天武朝에 天皇 卽神思想과 現人神思想이 나타난 이유는 天武朝의 정치형태가 유력호족의 협력에 의한 타협정치가 아니라, 중소호족의 지지에 의한 정치체제였고, 따라서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시대적 분위기는 자연히 아래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天武朝는 일본고대사에 있어서 大化改新 이래 추진해온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와 율령에 의한 지배체제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는 점에서 정치적·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아울러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에 의해 나중에 『古事記』 『日本書紀』가 편찬되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체계화되고 정치적인 일본신화가 탄생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또한 高天原의 관념도 天武朝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天武朝가 가지는 日本文化史上的 의의도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近江朝와는 달리 天武朝는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왕조인 만큼, 정치적 개혁이 급선무였고 문학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한문학에 뛰어난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궁정문학과 한문학도 침체하였다. 萬葉歌에 있어서도 天武朝는 近江朝보다 왕조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天武朝는 어디까지나 柿本人麻呂 등이 크게 활약하는 持統朝의 和歌 황금기를 준비하는 시기는 될지언정, 융성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天武朝는 문학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日本化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

27) 줄고, 「近江朝의 文學과 政治」, 『東아시아古代學』 第10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4. 12. p.74~89.

28) 줄고, 「萬葉集 七夕歌의 研究」, 『東아시아古代學』 第8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3. 12. pp.19~28.  
稻岡耕二, 전계논문, pp.68~71.

라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尹永水, 「近江朝의 文學과 政治」 『東아시아古代學』 第10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4. 12.
- \_\_\_\_\_, 「萬葉歌의 탄생과 渡來人의 역할」 『日語日文學研究』 第42輯, 韓國日語日文學會, 2002. 8.
- \_\_\_\_\_, 「萬葉集 七夕歌의 研究」 『東아시아古代學』 第8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3. 12.
- \_\_\_\_\_,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 『日本學報』 第37輯, 韓國日本學會, 1996. 11.
- \_\_\_\_\_,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는 百濟系인가?」 『東아시아古代學』 第1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0. 6.
- \_\_\_\_\_,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研究』, 景仁文化社, 2001.
-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1990.
-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編, 『新編 日本史辭典』, 東京創元社, 1993.
- 『日本書紀 (上)(下)』(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67.
- 『古事記 祝詞』(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58.
- 『萬葉集』(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5.
- 『懷風藻· 文華秀麗集· 本朝文粹』(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64.
- 『古代歌謠集』(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74.
- 稻岡耕二, 「人麻呂歌集歌의 筆錄とその意義」 『國語と國文學』 第46卷 第0號 東京大學 國語國文學會, 1969. 10.
- 大久間喜一郎, 「人麻呂と壬申の亂」 『古代文學의 傳統』, 笠間書院, 1978.
- 桑川定一, 「人麻呂歌集庚辰年考」 『國語國文』 第35卷 10號 1966. 10.
- 神野志隆光, 「人麻呂의 天皇神格化表現을めぐって」 『稻岡耕二先生還曆記念 日本上代文學論叢』, 上代文學研究會編 塙書房, 1990.
- 小島憲之, 『萬葉以前』, 岩波書店, 1986.
- 中西進, 『萬葉集의 比較文學的 研究 上卷』, 櫻楓社, 1972.
- 松前健, 「日本神話의 特性」 『時代別日本文學史事典 上代編』, 有精堂, 1987.

## 要旨

---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to the literature and politics of the Tenmu Dynasty(A.D. 672~686), established through the coup d'état called the Jinshin Rebellion(A.D. 672). It tries to understan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background of the Tenmu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Japanese culture by specifically examining the cause and the background of the Jinshin Rebellion; how the idea that the Emperor is God and the idea that God came to the world in human flesh formed, ideas representing the spirit of the Tenmu Dynasty; and the literature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enmu Dynasty.

The Jinshin Rebellion was caused by Imperial Prince Oama's discontent with the issue of succeeding the throne and his desire to hold the reins of power, and also by the discontent of provincial clans and the Shilla line with the Omi Government's strengthening central governmentalism and preferential treatment for Baekje's exiled intellectuals and influential clans. The reason why the idea that the Emperor is God and the idea that God came to the world in human flesh emerged in the Tenmu Dynasty was since its political form was not conciliatory politics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fluential clans, but was a political system supported by medium and small clans, and therefore the historical image of deifying the Emperor was naturally formed from below.

The Tenmu Dynasty is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very significant in Japanese ancient history since a nation with centralized government power, with the Emperor at its top, and its law system were near completion. Moreover, through recording and arranging the lineage of successive Emperors and various old events, later 『Kogiki』 and 『Nihonshoki』 were compiled, and owing to this a systemized and political Japanese mythology was born, unparalleled in the world. Also, that the concept of Takamanohara is rooted in the Tenmu Dynasty makes the meaning of the dynasty fairly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Japanese culture.

However, unlike the Omi Dynasty since the Tenmu Dynasty is established through a coup d'état, political reform was urgent and therefore literature did not prosper. Not only the literary tradition of Baekje's exiled intellectuals, who were experts in Chinese literature, was not succeeded or developed, court literature and Chinese literature also became inactive. Even though the Tenmu Dynasty lasted longer than the Omi Dynasty, the Manyoshu's Poem was not produced a lot. Thus, the Tenmu Dynasty was not a prosperous period itself, but was a period preparing for the golden age of Waka (Japanese poem) of Jito Dynasty, in which poets such as Kakinomoto Hitomaro played

an active role. Also, the Tenmu Dynast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rmed a strong Japanese trend in literature, politics, and in all other aspects.

Key Words : Tenmu Dynasty, Omi Dynasty, emperor Tenmu, Jinshin Rebellion,  
Takamanohara, Baekje's exiled intellectuals, the idea that the Emperor is  
God, the idea that God came to the world in human flesh formed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31-249-9119  
e-mail : ysyoon@kyonggi.ac.kr

K C I